

골롬반 선교

2023년 봄호 vol.124



하느님의 선교로 초대합니다

서경희 스테파노 신부

외국에서만 활동하다가 한국지부 책임자로 부르심을 받은 저에게 임기 첫해였던 작년 1년은 선교의 전환기를 마주하는 한국지부에 대한 관찰의 시기였습니다. 성령의 새바람에 내어 맡기며 지부장 임기를 시작한 직후 “지부총회를 열어야겠다”는 제 첫 마음에 따라 5개월간 준비하여 한 해가 가기 전 지부총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친교와 연대의 발맞춤”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지부총회는 한국지부의 선교사들과 선교 활동에 밑바탕을 이루는 직원들이 함께 “친교”를 체험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이 친교는 시노달리타스가 강조한 “대화” “경청”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다양한 구성원이 한데 모여, 질서 있고 자유롭게 소통하며 지혜를 나누는 복음적 친교였습니다. 이 체험은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초대하신 시노달리타스(함께 걷는 여정)에 이미 한국지부가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친교-참여-선교(사명)” 체험으로 이어지는 시노달리타스를 한국지부는 이미 친교로써 체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세계교회는 시노달리타스의 여정에 함께 발맞추고 있습니다. 이 여정은 비단 성직자와 수도자만의 여정이 아니라, 하느님 백성 모두가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작년 지부총회로 시작한 친교의 삶은 오로지 선교사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선교회의 모든 활동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후원회 여러분과도 이미 시작했다고 믿습니다. 이는 놀라운 성령님의 지혜와 이끄심이 아니라면 어찌 이를 수 있었겠습니까? 이 체험의 신비를 바탕으로 2023년 올해 한국지부는 시노달리타스의 두 번째 여정인 “참여”를 여러분과 “체험”함으로써 함께하는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시노달리타스의 세 번째 여정인 “선교”를 보다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한국 선교 90주년을 맞은 한국지부는 교회 안팎의 초대에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밖을 포함하여 하느님 백성이 성골 롬반외방선교회의 선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하고자 합니다.

시노달리타스는 분명 다양한 모습과 방법으로 구체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체험될 수 없는 시노달리타스라면 세계교회와 개인 신앙생활에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의미 없이 불어온 바람에 그칠 것입니다. 신

골롬반 선교

2023년 봄호 vol. 124

편집실 Tel. 02-927-2705
kormagazine@columban.or.kr
후원회 Tel. 02-929-2977
Fax. 02-929-1366
korseoulfund@columban.or.kr
한국지부 Tel. 02-926-1217
Fax. 02-926-0551
columban@columban.or.kr
www.columban.or.kr
www.facebook.com/columbankorea
02830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93-14

마음을 여는 글 03 하느님의 선교로 초대합니다 서경희 스테파노

말씀 산책 06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오수성 미카엘

피지 이야기 08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정의균 가롤로

대만 이야기 10 원주민들과 함께 산다는 것은 배시현 소화 데레사

추모 12 사랑하는 천요한 신부님 권태문 사도 요한

14 그리운 주 예레미야 신부님께 황정순 데레사

생태적 회심 16 공동의 집을 돌보기 위한 실천, 탈석탄 함편익 패트릭

선교의 은총 18 서로 살려 주는 마음 민 가비노

신학원 20 나의 첫 선교지 성요셉 요셉, 심홍석 암브로시오

칠레 이야기 22 그리스도를 위한 나그네가 된다는 것 박요셉 요셉

함께하는 여정 24 한국의 첫 레지오 단원 정기춘 수산나 편집실

후원회 26 골롬반 소식 28



표지 공동의 집 지구를 위한 한국지부의 피켓팅이다. 기후변화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더 레터(The Letter)」를 통해 프란치스코 교황은 생태적 회심으로 우리를 초대하였다. 이 영상을 시청한 후 선교사, 후원회원, 실무자가 기후정의와 탈석탄, 생물다양성 등을 위해 피켓을 들었다. 「더 레터」는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다. •기획 및 사진 제공: 골롬반회 한국지부 JPIC

“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 (갈라 2, 20)

오수성 미카엘 신부
번역·신지연 아녜스

제게 가장 의미 있고 삶에 힘이 되어 주는 성경 말씀을 나누게 되어 기쁜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레 성서에 관심이 많았고, 깊은 이끌림을 경험해 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묵상 시간이었습니다. 졸고 깨고를 반복하며 기도하는데 별안간 성구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갈라 2,20).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말씀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이 체험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잊혔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30대 후반쯤 제가 교육을 받기 위해 미국에 갔을 때 일입니다.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참가자들은 3일간 침묵 피정을 하였는데, 이때 성경 한 구절이 뇌리를 강하게 치고 들어와서 깊이 박혀 피정 내내 제 안에 머문 체험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어린 시절, 제게 문득 다가왔던 그 말씀입니다. 저는 이를 기도 안에서 더 깊이 묵상하였고, 그 후부터 이 말씀은 항상 제 마음 한켠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당시 피정의 지도 신부였던 제리 피어스(Gerry Pierce) 신부를 2008년 피정 때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피어스 신부는 매 강의 시작하기 전, 우리 피정자들에게 5분 동안 묵상하기를 권고하면서 이를

만트라 mantra

산스크리트어이며 불교나 힌두교에서 기도할 때 외는 짧은 음절로 된 소리 또는 진언眞言이다.

마라나타 Maranatha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전례 때 사용한 표현이며 사도 바오로는 이를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는데(1코린 16,22) 아멘, 호산나, 알렐루야 같이 뜻이 잘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비는 “주님, 어서 오소서!”라는 기도이다. - 천주교 용어사전과 천주교 전례사전 참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성찰하는 시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피어스 신부는 우리에게 존 메인(John Main, 1926-1982)이라는 분에 관해 들려주었습니다. 영국 외교관이었던 그에게는 절친한 스님이 있었는데, 그 스님이 존 메인에게 “내 안에 계신 주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이는 “내 안에 항상 자리하고 계신 주님”께 다가가기 위한 침묵 기도였습니다. 존 메인은 훗날 성 베네딕도회 수도자가 되어 영국 런던에 묵상 센터를 세우고 이 침묵 기도를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 70대가 되었을 때 성 베네딕도회 로렌스 프리먼(Laurence Freeman) 신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故 존 메인 수사를 이어서 이 묵상 기도를 평신도들에게 전수하며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깊이 성찰하고 묵상하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기도를 “마음으로부터의 기도”라고 불렀는데, 저에게 있어 이 기도는 내 안에 살아 숨 쉬고 계신 주님을 깊이 자각하는 과정입니다. “마음으로부터의 기도”를 하기 위해 마음을 가다듬는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바닥이나 의자에 앉습니다. 그런 다음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동작을 하면서 정신을 깨워 몸을 인지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의자에 앉은 경우라면, 등을 곧게 펴고 발을 땅에 딛고 눈은 편안하게 감습니다. 이 상태에서 *만트라를 조용히 읊는 것을 반복합니다. 만트라

를 외는 목적은 수많은 잡념으로부터 정신을 맑게 하고 편안한 마음 상태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모든 생각에서 자유로워진 빈 마음을 만드는 것입니다. 로렌스 신부는 “마라나 타”(1코린 16,22; 묵시 22,20)라는 만트라를 읊기를 제안합니다. “주님, 어서 오소서”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마음 준비를 마치면 절대 침묵 가운데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독대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계속 이 마음을 유지하면서 기도 안에 현존하면 됩니다.

로렌스 신부는 이 묵상을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 하는 것이 좋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물론 기도하는 동안 수많은 방해와 악한 유혹에 정신이 흐트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저 방해 요소라는 것을 인지하고, “마라나 타, 마라나 타 ...” 하면서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중에 이 만트라를 반복하면 마음속 여러 생각을 비우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인생 여정 중에 여러 번 찾아왔던 갈라티아서 말씀은 줄곧 저와 함께 있었으며, 아마 제가 자각하지 못한 순간에도 “제 안에 자리하신 주님”께서 제게 이 따금 외치시던 말씀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저는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진 성구가 마음으로부터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준비시켰고 이끌어 주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로써 “당신과 예수 그리스도는 한몸을 이루게 됩니다.” ✠



오수성 | 성골롬반외방선교회, 1969년 아일랜드에서 사제서품을 받고 이듬해 한국으로 파견되었다. 제주교구 한림성당을 시작으로 서울대교구, 인천교구, 광주대교구에서 본당사목을 했으며, 한국지부장을 역임했다. 2003년부터 광주 골롬반선교회관 책임 및 후원회를 맡고 있다.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정의균 가톨릭 신부

본당 신부로 활동하면서 신자분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문의는 다름 아닌 혼인성사입니다. 이곳 피지는 한국의 혼인 문화 중 ‘합’과 비슷한 문화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신랑 쪽 어른이 신부 쪽 어른을 공식적으로 방문하여 예물을 전달하고 결혼 승낙을 받는 예식입니다.

그런데 피지의 혼인 문화에서 한국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피지의 대부분 젊은이는 혼인 전에 동거를 하며, 자녀를 둘 이상 낳고 난 후에 혼인을 결심하는 편입니다. 젊은 남녀가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주님의 부르심, 즉 결혼 성소에 응답하는 모습을 볼 때,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하게 부르시고 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혼인성사를 주례하다 보면 이 성사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민법상 혼인은 만 18세 이상이 된 당사자 쌍방이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 등이 포함된 서류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하지만 교회법상 혼인은 ‘신고’가 아닌 혼배 예식 중 이루어

혼인성사를 마치고,
피지의 전통 옷을
입은 부부와 그들의 딸과 함께

『골롬반선교』 청탁 원고

어지는 ‘서약’을 통하여 인간의 제한적인 영역을 넘어 하느님 현존의 신비를 체험하는 영원으로의 초대입니다. 이는 교회법에 “혼인 서약은, 이로써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그 본연의 성질상 부부의 선의와 자녀의 출산 및 교육을 지향하는 평생 공동 운명체를 이루는 것인바, 주 그리스도에 의하여 영세자들 사이에서는 성사의 품위로 올려졌다.”(『교회법』 제1055조 1항)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혼인 면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혼인을 결심하기까지 얼마나 심사숙고하였는지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평생 운명 공동체를 이루려는 배우자 간의 신뢰와 사랑은 마치 바오로 사도가 코린토에 있는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과 견주어 볼 수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한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요란한 징이나 소란한 뿔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1코린 13,1; 4,7).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신비의 차원인 혼인성사의 참된 의미를 묵상하다 보면, 불완전한 우리 인간이 완전한 하느님께로 온전히 초대됨을 느끼게 됩니다. 저 또한 이곳 성가정 성당에서 선교사제로 하느님의 복음을 이곳 피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지만,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주님 앞에 언제나 겸손하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처녀들의 비유(마르 25,1-13)처럼, 언제나 깨어 있으며 주님의 부르심(성소)에 응답하는 한 인간으로서 이곳 피지 신자분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오늘도 인내하고 기다리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하느님께 감사하는 하루를 보냅니다.

피지 북쪽 섬에서 정의균 신부 드림 ✎

대나무를 엮어 만든 피지 전통 나룻배 “빌리빌리”를 타고 시골 마을 공소 미사 가는 길에서

정의균 | 성골롬반외방선교회. 2014년에 사제품을 받고 이듬해 미얀마에 파견되었다. 이어 2017년, 남태평양에 위치한 피지공화국에 파견되었고, 현재는 북쪽 바누아 레부 섬의 람바사 시에 있는 성가정 성당에서 주임신부로 사목하고 있다.

2023년 봄호

원주민들과 함께 산다는 것은

배시현 소화 데레사 선교사

대만에 와서 언어를 배우느라 보낸 첫 1년 이후 줄곧 원주민 사목을 위해 원주민들과 함께 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만의 원주민은 공식적으로 16개 부족이 있는데, 그중 저는 타이아족(泰雅族Atayal)이 사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공소예절, 청소년 사목, 소공동체 모임(가정 기도), 환자 방문 등 일반 본당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합니다.

원주민 대부분은 굴, 감, 복숭아 등 과일을 재배하며 생계를 꾸리고, 더불어 먹거리 농작물인 양배추,

콩, 옥수수, 토마토, 생강 등 채소를 키웁니다. 예전에는 바라(고라니 종류), 산돼지, 날다람쥐 등을 사냥해 주식으로 먹었는데, 지금은 생계가 아닌 재미로 그 전통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원주민들과 소통하고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그들의 생업을 돕곤 합니다. 경험이 없었기에 궁금했던 농사일을 막상 접해보니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이분들과 마음을 깊이 나눌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었습니

다. 처음으로 제가 굴을 수확하러 갔을 때 일입니다. 오

배시현 선교사(뒷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사목하는 원주민 지역의 쓰린 마을 “예수 부활 성당” 청소년들과 함께



『골롬반선교』 청탁 원고

전 7시, 굴밭으로 가기 위해 동네 사람들과 한 신자 집에 모였습니다. 일을 하려면 아침을 꼭 챙겨야 한다면서 찐만두를 하나씩 먹고 우리는 경사가 가파르고 길이 좁은 산꼭대기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11월 중순경에서 3월 중순까지 굴을 수확하는데, 특히 설에 굴을 선물하는 풍습이 있어 이 시기를 아주 바쁘게 보냅니다. 굴은 중국어로 쥐이즈(橘子)라고 발음합니다. 굴(橘)을 중국어 간체자로 쓰면 桔(쥐이)인데, 이 글자가 “길하다”는 뜻을 지닌 吉(지이) 자와 생김과 발음이 비슷해서 “대길대리(大吉大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굴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나무씩 맡아 굴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한 그루에 엄청나게 많은 굴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는데, 무거워진 가지가 금세 부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 가지에 바구니를 걸어 수확한 굴을 담았으니 작업하기는 편리했지만 가지가 부러질까 불안한 마음이었습니다. 굴로 가득 찬 바구니를 가지에서 내려 땅에 놓아야 안심이 되면서 ‘굴의 가지는 정말 강하구나! 마치 부모님이 힘을 다해 자식들을 돌보는 것처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감탄하는 사이 한 분이 말씀을 보태셨는데, 하나의 나무(부모)에서 나지만 굴(자식)의 크기나 색깔이 모두 다르다며 사람과 같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순간 하느님의 마음이 생각났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인 굴 하나까지도 돌보시니 얼마나 위대하고 경이로운지, 정말 보람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며 하느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작업을 끝내고 우리는 집으로 내려가서 굴 포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구니를 기계에 내려서 크기별로 분류하고, 크기와 중량에 맞게 상자를 채웠습니다. 그렇게 그날 출하할 굴 포장을 마치고, 우리는 둘러앉아서 간단한 간식과 포도주, 맥주로 오늘의 수고를 서로 격려했습니다. 신자분들은 저에게 절반은 원주민이 됐고, 절반은 대만 사람 다됐다며 다음엔 사냥도 같이 가자고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서투른 손으로 방해가



마을 사람들과 굴 수확 후에 포장 작업을 할 때(가운데가 필자)

배시현 |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신도선교사. 2014년에 대만으로 파견되어 신주교구 타이안 난산촌 지역 8개 본당에서 원주민 사목을 하고 있다. 특별히 청년, 복사단, 젊은 엄마들 모임을 담당하고 있다.

되지 않았을까 걱정했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농작물을 돌보는 분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농사는 자연에 순응하고 하느님께 많이 의지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기 사람들은 언제나 주어진 것에 감사합니다. 굴이 많이 열리면 풍족함에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여느 해 보다 적어도 함께 나눌 것은 있다며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 신자분들과 함께하면서 제 삶 또한 풍요로워짐에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원주민들과 함께 산다는 것은 감사를 배우는 삶입니다. 감사하는 삶은 우리 자신을 풍요롭게 하고, 풍요로워진 우리가 하느님을 닮도록 만듭니다.

후원회원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 속에 선교 생활을 할 수 있어 늘 감사합니다. 굴 하나하나를 어루만져주시듯 우리를 돌보시는 하느님의 손길을 느끼는 따뜻한 부활 맞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復活節快樂! ✠

사랑하는 천요한 신부님

권태문 사도 요한 신부



권태문 신부와 故 천요한 신부

권태문 | 성공로남외방선교회, 서울 출신이며, 2010년 사제품을 받았다. 2013년까지 대만에서 선교하였고, 미국 포담대학교에서 영성신학을 전공한 후 중국에서 활동했다. 현재 필리핀에서 본회 “영성의 해” 원장으로서 수련 과정에 있는 골로롬반회 신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1985년, 서울 도봉동성당으로 천요한 신부님이 부임해 오셨습니다. 크지 않은 키, 날카로운 눈매에 말수가 적었던 분으로 기억합니다. 몇 년 뒤 제가 중학생이었던 어느 날, 미사 후에 신부님이 대뜸 저에게 탁구를 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네”라고 대답했고, 거의 2년 동안 일주일에 두 번꼴로 신부님과 탁구 시합을 했습니다. 당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신부님은 승부욕이 엄청 강한, 절대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제 실력은 신부님 상대가 안되었는데도 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매주 탁구를 치는 동안 제 실력은 일취월장했고, 가끔 신부님을 이긴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신부님의 분한 표정을 보면서 제 흥분을 수줍게 표현하고 좋아했던 정겨운 기억이 있습니다.

본당 신자 수가 많아지면서 새 성전을 짓기로 했고 천 신부님은 이에 힘을 쏟으셨습니다. 지하 공간을 사제관으로 쓰시면서, 생활비를 절약한 것과 신부님 가지신 것까지 모두 신축 기금에 보태셨습니다. 그리고 새 성당에서 편히 더 머물지 않으시고 준공하자마자 한인 교포 사목을 위해 미국으로 떠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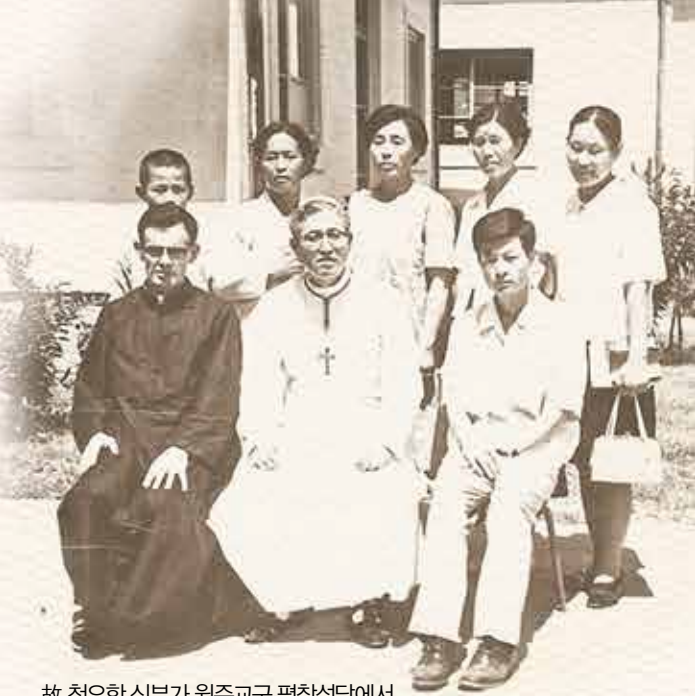
시간이 흘러 골로롬반회에 입회한 저는 미국 시카고에 있었던 골로롬반 국제신학교에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한인 순교자성당에서 사목하시는 천 신부님과 인연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보일러실을 사무실로 쓰시면서, 여기가 가장 따뜻한 곳이라고 수줍은 미소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제 방문을 한 번도 귀찮아하지 않으셨지만, 대화가 오래 이어진다면 바로 대화를 중지하셨습니다. 저는 신부님이 친할아버지처럼 좋았기 때문에 늘 아쉬웠습니다. 2009년, 천 신부님과 순교자 본당 신자들이 제 부제

품을 위해 기도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시카고를 떠나 올 때만 해도 신부님을 미국에서 다시 만나리란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머물 선교지는 중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3년, 미국 유학을 하게 되면서 다시 신부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보다 많이 늙으셨고, 20년 넘게 사목한 순교자 본당을 떠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한인 본당으로 이동하시는 신부님을 도와 저는 물건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그중에 신자들이 선물한 양말과 속옷이 있었는데도 늘 신부님은 해어진 옷에 구멍 난 양말을 신고 있었습니다. “신부님, 낡은 건 버리고 새것으로 갈아입으세요. 새 옷도 가져가서 입으시고요.” 하자, 신부님은 “이것들이 편해요” 하며 마다하셨습니다. 또, 80년대 카세트 라디오를 굳이 소포로 보내 그곳에서 계속 사용하려고 하셔서, 새로 사는 게 더 싸다고 불평하던 저를 보시고, “저는 소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라고 하셨습니다.

2018년, 저는 선교지에 있다가 본회에 큰 행사가 있어 미국에 가게 되었고, 캘리포니아의 한인 본당에서 사목하시는 신부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우리의 대화 주제는 도봉동성당, 순교자성당 신자들이었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을 그렇게 달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신부님과 마지막 만남입니다. 작년에 고향 아일랜드로 귀국하신 후에 가끔 연락을 드렸지만, 문자를 확인만 하실 뿐 답이 없으셨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인데,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아시고 모든 연락을 끊고 홀로 조용히 죽음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야속했는지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장 천요한 신부님다운 모습으로 마지막을 보내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려한 언변이나 사교적 기술은 없었지만, 신부님은 하느님께 받은 가장 좋은 선물인 겸손과 항구성, 충실함을 온전히 나누면서 사셨습니다. 세속 인기와 성공의 가치를 멀리하고, 오른손도 모르게 하는 왼손



故 천요한 신부가 원주교구 평창성당에서 사목할 때 故 지학순 주교와 신자들과 함께(1968-69년 즈음)

의 봉사로 평생을 살아오며 몸소 보여주셨던 가난과 겸손, 누구보다도 따뜻한 마음을 지녔지만 그것을 표현해서 사람들에게서 얻는 달콤한 선물을 거부한 채 표현하지 않은 속 깊은 사랑으로 살아오신 분, 그분이 바로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요한 신부님입니다.

주님, 제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을 결코 오래 간직하지 말게 하시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주님, 제 부족함과 미숙함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 자신감을 잃거나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선물을 과소평가하지 말게 하소서.
주님께 받은 은총의 선물이 미약하다고 낙담하지 말고, 겸손히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 사제가 되기까지, 사제가 되어서도 지금도 저를 이끌어 주시는 가족과 성직자, 수도자들, 기도해 주신 교우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 사제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교우 여러분과 선의의 착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분들의 희생을 항상 기억하게 하소서.
아멘. ✠

*故 천요한 신부가 매일 바쳤다는 기도이다.



그리운 주 예레미야 신부님께

황정순 데레사



뒷줄 맨 오른쪽이 필자. 주 예레미야 신부가 설립한 영성생활상담소에서 오랫동안 함께했던 동료들과 고인의 추모미사를 봉헌한 뒤 한국지부 마당에서

신부님을 불러본 지 벌써 2년이 다 되었습니다. 펜 데믹으로 연기된 모국 휴가를 떠나시기 전 식사한 것이 신부님과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시 뵈려는 기대와 달리 신부님의 고향 방문이 영원한 고향, 하느님 아버지 곁으로 가시는 여행길이 되었습니다! 다시 뵈지 못하여 슬프고 아쉬운 마음 가득하나 신부님께서는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평화와 행복을 누리시리라 믿습니다!

신부님과 함께했던 영성생활상담소 활동을 회고해

봅니다. 1987년, 예수회 로제 샹푸(Roger Champoux) 신부의 소개로 제가 주 신부님을 처음 만났을 때 신부님께서는 한국의 성직자 수도자들을 위한 상담소를 구상하며 모임을 제안하셨습니다.

1980년대 한국은 산업사회를 향한 경제 발전과 오랜 군부 독재 정치로 인간성과 가치관이 상실되고 인권이 억압된 상황에 놓여 있었으며, 이에 교회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압받는 이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또한, 신자 수와 성직자 수도자도 증가해 교회는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정신적 건강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사회에 투신하여 하느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내면 여정을 돕고자 하는 신부님의 구상에 적극 동참하였습니다. 신부님은 함께 일을 시작할 상담 전문가를 오래전부터 찾고 계셨습니다. 당시 한국은 심리상담 분야가 초창기여서 전문가도 소수인데다 성직자 수도자를 대상으로 상담할 교회 내 수도자 성직자 전문가 는 더욱 없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1988년 3월부터 신부님과 저는 서울 왕십리에 있었던 골롬반 회관에서 매일 회의하며 상담소 일을 계획하였습니다. 교회 어른들과 수도회 장상들을 만나면서 일의 방향을 나누고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상담 활동을 위한 적절한 장소를 여러 군데 찾아 다녔으나 골롬반회에서 주신 종잣돈으로 장소를 얻기는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러한 때 당시 서울대교구 강우일 주교께서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324호를 흔쾌히 내어 주시어, 1988년 5월 3일 “영성생활연구소(Religious Consultation Center)”라고 이름 붙이고 상담소를 개소하였습니다.

초창기에 인간 성장과 수도 생활에 대한 강좌와 워크숍을 시작한 때부터 100~200명이 찾아와 강당을 가득 메운 모습을 보며 우리가 꼭 필요한 일을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가 갈수록 상담소 활동이 알려지고 상담 요청도 많아져 방 4개를 확보하고 상담자 수도 늘려 개인 상담을 중심으로, 그룹 상담, 심리 검사, 전문상담사 양성까지 많은 수도자 성직자가 참여하였습니다. 124개 남녀 수도회와 10개 교구의 성직자, 신학생, 신자들이 이용했습니다. 교구의 요청으로 주 신부님은 매년 신학생 피정 지도를, 저는 여러 수도회를 방문해 그룹 상담과 워크숍을 하는 것도 우리의 커다란 몫이었습니다.

신부님의 선구적인 아이디어로 시작한 25년간 영성



영성생활상담소 소장 시절 故 주 예레미야 신부

생활상담소의 활동은 교회뿐 아니라 사회에도 선구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1980년대 초기 전문 심리상담 기관으로, 잃어가는 인간성을 회복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또한, 한국교회에서 첫 번째 심리상담 기관일 뿐 아니라 유일하게 수도자 성직자를 위한 상담소의 특성을 가지고, 교회 지도자들의 양성에 인간적 성장과 영성을 통합하는 전인적 성장의 양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나이가 평신도에게는 맹목적인 신앙생활에 머물지 않고 하느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기도하며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공동체 안에서 친교를 나누는 신앙 생활을 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주 예레미야 신부님, 신부님과 함께한 25년,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한 풍성한 시간이었습니다. 신부님과 함께 일하며 받은 풍성한 선물에 신부님과 하느님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느님의 사랑 속에 기쁨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신부님을 만난 사람들과 저를 위해서도 하늘 나라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

황정순 | 국제가톨릭형제회(AFI), 대학원에서 심리상담과 사목상담을 전공, 1982년부터 상담심리전문가로 일하고 있다. “영성생활상담소” 초대 소장인 주 예레미야 신부와 설립 준비부터 함께하면서 25년 동안 한국의 수도자와 성직자의 내면 여정을 동반했다.

공동의 집을 돌보기 위한 실천 “탈석탄”

함편익 패트릭 신부

가톨릭교회는 2020년,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찬미받으소서』 반포 5주년을 기념해 『공동의 집 지구를 돌보기 위한 여정』이라는 지침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문헌은 화석 연료와 전쟁 무기 같은 유해한 것을 생산하는 산업에서 투자를 철회하는 방법을 설명하며 화석 연료 산업 투자 철회와 깨끗하고 재생가능한 에너지 재투자가 기후변화와 오염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해수면 상승과 파괴적인 기상 현상 등 비상사태로 하느님의 피조물이 파괴되고 남반구의 가난하고 취약한 공동체가 심각한 위험에 처했습니다.

지구를 보호하고 돌보는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살아가고자 하는 골롬반회는 과거 많은 골롬반 사제가 활

동했던 곳으로 특별한 역사적 의미와 애정이 큰 삼척의 주민들에게 깊은 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회 JPIC(정의평화창조질서보전팀)은 삼척시 주거지 인근에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포스코 삼척블루파워) 반대 운동을 쉽 없이 펼치는 삼척 주민들을 응원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삼척을 방문해 연대하고 있습니다.

이 석탄화력발전소 반대 운동은 2024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시 배출될 오염 물질이 삼척 주민들의 건강에 미칠 심각한 영향 및 수많은 문제를 강조합니다. 현재 우려하는 부분은 삼척시 반경 5km 안에 세워진 석탄화력발전소의 높은 굴뚝입니다. 이미 1990년에 시내 반경 3km 내에 지어진 시멘트 공장의 소각장에서 위험한 오염 물질을 ‘가공’하는 데에만 중점을 두었지 여과없이 독성 물질을 내뿜고 있습니다. 여기에 석탄화력발전소까지 더해질 상황 앞에서 수많은 주민은 삼척이 각종 유해 물질로 오염된 산업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아름다운 명사십리가 심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발전소 건설의 한 부분인 석탄을 나를 하역장과 방파제 건설을 위한 준설 작업으로 인해 삼척 맹방해변의 해안선이 급속도로 침식되어 눈에 띄게 파괴되었고 해양 환경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한때 아름다웠던 맹방해변을 망가뜨리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맹방해변을 살려내라



한국지부 JPIC팀 선교사들은 매월 삼척을 방문해 주민들과 활동가들과 만나 거리미사, 피케팅, 기자회견 등 여러 방법으로 함께하고 있다. 맨 오른쪽이 필자



맹방해변 석탄 하역장 건설 현장을 비통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함편익 신부

는 주민들 요구와 압력을 포스코의 자회사인 삼척블루파워사는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밝혀진 바로는, 맹방해변에 건설 중인 석탄을 운반할 하역장 주변 해안선의 침식을 막기 위한 방조망 설치 공사가 실패했고, 이 때문에 하역장 준공일이 지연되었습니다. 삼척블루파워는 발전소 가동일을 맞추려고 석탄을 실은 배가 정박 중인 동해항에서 삼척 시내를 통과해 발전소까지 육상으로 석탄을 수송할 계획을 시민들 모르게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주거지와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통과하는 수백 대의 덤프트럭에서 발생할 석탄 먼지는 시민들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주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고, 환경운동가들은 분노했습니다.

삼척블루파워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석탄 육상운송을 승인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삼척시는 이 계획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히고 현재 이에 대한 답변을 찾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또 한 번 눈과 귀가 가려지고 막힌 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모든 일이 진행되었다는 것에 망연자실하였습니다. 삼척블루파워와 삼척시가 주민 안녕과 복지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고 자기 이익만을 우선한다는 것을 주민들은 중대하게 인식하였으며, 삼척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지키기 위해 강력한 행동을 할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

니다. 현재는 시민들과 운동가들의 활동과 압력으로 석탄 육상 수송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언제 포스코가 다시 시도할지 모르니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활동가들은 거의 2년을 매일 삼척 시내를 걷고 삼척우체국 앞에서 피켓팅을 합니다. 스러져가는 맹방해변에서도 시위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전국 환경단체와 한국지부 JPIC팀, 가톨릭기후행동 등 종교 단체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미래로 나아가는 길은 지금 당장 기후비상사태를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화석 연료 산업에 대한 직접 투자 및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 투자를 철회하고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계획을 중단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하고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자신과 공동의 집인 지구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하는 길입니다.

“하느님 작품을 지키는 이들로써 우리의 소명을 실천하는 것은 성덕 생활의 핵심이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 체험에서 선택적이거나 부차적인 측면이 아닙니다.”(회칙 『찬미받으소서』 217항).

함편익 |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아일랜드 출신이며 1995년 사제서품 후 이듬해 한국으로 파견되었다. 현재 본회 JPIC 담당이며 이주민사목도 하고 있다.

서로 살려 주는 마음

민 가비노 신부 | 번역·신지연 아네스

열세 살쯤, 신문에서 구인란 토마스 주교님을 보았습니다. 한국전쟁 포로로 잡혀갔다가 생환되신 직후였는데, 앙상한 얼굴과 큰 키에 수단 입은 모습이 이상하게도 와닿았습니다. 1963년, 구 주교님의 후배 사제가 된 저는 제 소망대로 한국에 파견되었고, 주교님이 교구장으로 일하는 춘천교구에 가서 본당사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강원도는 무척 가난했습니다. 전기 수도는커녕 화롯불과 우물만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넉넉하지 않아도 자기 먹을 것까지도 나누는 마음, 서로 돕고 살려 주는 마음, 서로 받아주는 넓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은 사랑이 많은 민족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속 깊은 사랑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으며 저는 강원도와 서울에서 본당 신부로 행복하게 사목하였습니다. 이후 약 10년 동안 한국지부에서 여러 책임을 맡았고, 이 일을 마친 뒤 고국으로 짧은 휴가를 떠났습니다.

아일랜드의 메이누스 대학교 리암 라이언 교수는 책 『부르심과 사제직(Vocation and Priesthood)』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제의 직분은 주님께 희생 제사를 바치는 것으로 가장 잘 구현된다. 그러나 그리스도



민 가비노 |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서품 이듬해인 1964년에 한국에 왔다. 춘천교구 죽림동·운교동·양덕원, 원주교구 단구동·영월, 서울대교구 사당동, 의정부교구 지금동(설립)에서 본당사목을 하였으며, 시장사목(서울 노량진수산시장), 병원사목, ME 지도를 하였다. 부지부장을 역임했으며 후원회 설립에 크게 기여했다. 2003년부터 아일랜드에서 활동하고 있다.

교 공동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 또한 사제의 직무이다.” 한국으로 돌아갈 때, 이 말을 떠올리며 저 역시 그 직무에 투신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한국에 오니 매마침 서울 외곽 공장 지역에 본당을 신설하라

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서울 변두리에도 많은 사람이 이주해서 본당 분리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을 세울 기반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공공건물 한 층을 빌려 성전과 모임방으로 사용하였고, 어느 정도 자리 잡을 즈음 사목회를 꾸렸습니다. 임원들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민주적 방식으로 선출하였으며, 저는 이 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첫 사목회의는 제 작은 집에서 열었는데, 우리는 시작하며 짧은 기도를 바치고 성경을 봉독하였습니다. 그다음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정적을 깨고 한 임원이 “신부님, 이제 우린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저도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는 역할에 맞는 책임이 주어졌고, 저도 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다과를 준비하러 부엌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첫 회의를 축하하는 의미에서요.”

사목회에 결정권이 있음을 깨닫고 주체적으로 운영되기까지 반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들은 성전 건립 계획을 세우고 모금을 시작하였습니다. 그즈음 교구에서 부지 찾는 일을 맡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방직 공장을 구매한 것입니다. 저는 이 사목회와 함께하는 동안 단 한 번도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은 사목회가 주체적으로 진행하였고, 덕분에 저는 교우 방문과 병문안, 신자들의 영성을 위한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교구 정기 감사 때 본당을 방문한故 김수환 추기경과 감사탐에게 저는 우리 공동체가 하는 실험적인 사목을 설명했습니다. 추기경님은 공동체가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 저와 사목회장에게 자세히 질문하셨고, 타인을 경청하는 온유한 분

으로서 우리를 적극 지지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추기경께서 얼마 뒤 어느 자리에서 “한국 교회에는 수많은 사제가 있지만, 주님의 사명을 따르는 새로운 방향과 방식을 시도하는 선교사들을 언제나 필요로 한다.”라고 언급하셨다고 합니다.

본당 임기를 마친 이듬해 주교님은 저에게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서 준본당을 시작하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한두 달만 가서 살아보고 그때 결정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곳에서 3년 반을 살았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장 옆에 마련한 작은 성당에서 미사와 교리를 하였고, 저는 매일 장화를 신고 시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바쁘게 일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는데, 틈틈이 성서 읽기를 다 함께 했던 기억이 납니다. 둘러앉아 우렁 화와 소주 한잔 기울이던 시간도 잊을 수 없습니다.

40년 동안 정 많고 사랑이 깊은 한국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서로 살려 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더 큰 세계를 향해 사랑을 나누시길 응원합니다. ✠

민 가비노 신부가 노량진 수산시장 준본당에서 사목했던 당시(1998~2002년) 서울대교구故 김옥균 주교가 방문했을 때



나의 첫 선교지

박요셉 요셉, 성요셉 요셉, 심홍석 암브로시오 신학생은 첫 해외 선교 발령(FMA, First Mission Assignment)을 받고 2022년 2월에 칠레로 파견되었습니다. 골롬반회 신학생들은 종신서원과 부제품을 받기 전 단계로 2년 동안 해외로 나가 선교사로서 살게 됩니다. 낯선 선교지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곳에 계신 하느님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어느덧 절반 넘는 시간을 지구 반대편 칠레에서 보내고 있는 신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성요셉 요셉 신학생

저는 칠레 산티아고의 푸엔테 알토 지역의 산 마티아스 본당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미겔 신부님(아일랜드 출신), 조성근 신부님과 살고 있으며, 우리 본당에서 함께 사목하는 김종근 신부님과 이웃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국과 다르게 9개 공소가 따로따로 존재하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본당을 이루는데, 세 분 골롬반 사제는 본당을 세 구역으로 나누어 사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당은 칠레 남쪽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모이면서 30여 년 전에 새로 형성된 동네로 매우 소외된 변두리 지역입니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곳이지만 순박함을 간직한 사람들과 기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본당 성탄절 미사 후, 가운데가 필자이다. 맨 왼쪽은 지원사제 최동민 신부, 그 오른쪽은 미겔 신부이다.



본당에 와서 제일 먼저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했는데, 매 모임에 가서 인사하고 대화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대화를 모두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신자들은 그런 저를 환대해 주고 관심을 가지고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제가 본당에서 하는 활동 중 하나는 몇몇 공소에서 진행되는 교리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첫영성체를 준비하는 어린이와 부모 모임에 참여하고, 견진교리반 청소년들과 시간을 함께합니다. 주일학교가 없기에 이 교리를 보통 2년을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청소년 사목을 경험합니다.

선교지 삶은 하느님과 관계가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함을 일깨워 줍니다. 오롯이 의지해야 하는 분은 하느님뿐임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받는 환대와 관심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제 존재가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경험은 선교사로 살며 느낄 수 있는 크신 하느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경험과 만남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발견하면서 선교사는 나와 관계하는 모든 것과 자신 안에서 하느님을 새롭게 체험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해 준 분들에게 저도 사랑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나누고 여기 사람으로서 동행하는 것이 제 삶의 미래가 되길 바랍니다. 이처럼 어떤 경험은 진정으로 가서 보고, 함께 살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하느님과 골롬반회에 감사드립니다.



칠레 골롬반회 본부 정원 골롬반 성인상 앞에서, 왼쪽부터 성요셉 신학생, 김종근 신부, 산티아고 셀레스티노 대주교, 박요셉 신학생, 심홍석 신학생, 조성근 신부



출처: 남미지부 칠레 페이스북

입회할 때부터 칠레에 오고 싶었기 때문에 이곳으로 첫 발령을 받고 참 기뻐했습니다. 지금 저는 수도 산티아고의 엘 보스케에 있는 성 골롬반 본당에서 호주 출신 단 할딩 신부님과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7개 공소가 모여 한 본당을 이루고 있고 이민자의 집, 청소년 사목, 첫영성체반, 빈민사목 등 활동이 이루어지는 활발하고 건실한 공동체입니다. 저에게는 본당 청소년들과 로스 안데스 순례길을 걸었던 기억이 가장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11시간 동안 27km를 걸으며 함께 추억을 쌓았던 시간을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제 왼쪽 팔뚝에는 햇볕에 탄 자국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 칠레의 화두 중 하나는 “이민자”입니다. 매일 오백 명 정도의 이민자가 목숨을 걸고 칠레와 볼리비아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아이티, 콜롬비아 등에서 온 이 이민자들은 칠레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노동 착취는 물론이고, 안전하



심홍석 암브로시오 신학생

게 머물 장소조차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 골롬반회에서는 2019년부터 쉼터를 마련하고, 법률적 사목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쉼터에서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이들이 칠레에 오게 된 사연과 이 나라에서 겪는 차별과 폭력을 듣노라면 저는 할 말을 잃습니다.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과묵한 줄 알았던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한풀이하듯 쏟아내고는 짧은 순간만이라도 두려움과 압박감에서 해방될 때 저는 이곳에 있을 수 있어 기쁩니다. 예전에 단 오말리 신부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 길에서 행복하다면, 계속 이 길을 가라.”

예, 저는 저의 동반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를 북돋아 줄 때 행복합니다. 저는 골롬반회의 선교란 하느님의 작은 이들과 함께 걷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골롬반회의 수많은 선배 신부님이 그렇게 살아오셨고, 그 삶의 궤적이 항상 저를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은 후원회원 여러분의 기도와 지원이 있기에 가능함을 항상 되새깁니다. 골롬반 선교가 계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그리스도를 위한 나그네가 된다는 것

박요섭 요셉 신학생

스페인어 공부를 마치고 발령받아 온 곳은 칠레 북쪽 사막 지역인 알토 오스피시오의 작은 도시 본당입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본당 신부님은 저의 미션(선교)을 스스로 찾아서 활동하기를 권유하셨습니다. 아직 말도 잘 못하고 관계를 맺은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발걸음을 조금씩 떼었을 때 제 선교 여정에 가까이 함께해 주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 전파, 곧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 주며 자신의 선교 여정을 걸어가는 분들이었습니다. 종교를 떠나 지역의 가난한 분들과 같이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저와 함께 해 주려는 마음을 보면서 이미 하느님께서 그분들 안에 계심을 체험합니다. 저는 이미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와서 예수님의 선교에 참여할 뿐입니다.

이 지역은 난민들이 모여 살면서 조금씩 도시가 커지고 있습니다. 새로 생긴 난민 캠프는 매우 열악합니다. 자기 나라에서는 먹을 것조차 구할 수 없어 이국땅에 온 이들은 전기도 물도 없는 사막에 임시로 집을 짓고 비정기적으로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곳엔 길거



본당 구역 내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매주 전달할 급식을 만들 때 일손을 보태어 본당 봉사자들을 돕곤 한다.

박요섭 |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신학생. 2015년에 입회하였고 서울 대신학교에서 영성신학을 전공하고 있다. 2022년 2월에 첫 선교지인 칠레로 파견되어 2년째 활동하고 있다.



성경주간에 본당 신자들과 함께 조별 성경 나눔을 할 때

리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 집 근처 도로에서 음료수를 팔고 있는 모녀를 볼 때면 가슴이 참 아픕니다. 가서 음료수를 사고 안부를 묻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또한,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수업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만날 때면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제가 아이들 덕분에 마음의 위안과 치유를 받고 옵니다.

한국에서는 원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지만 여기서는 언어의 한계 때문에 그러지 못합니다. 선배 선교사들은 저에게 아이가 되는 경험을 들려주시곤 하는데 아이 또는 바보가 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경험을 통해 저 또한 다른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는 제가 부족한 사람이고 하느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겸허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저 자신이 아니라 아무것 없이도 제 모습 있는 그대로 하느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깨달아 갑니다.

선교 여정은 아름답고 행복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움과 절망도 많이 느낍니다. 선교는 눈에

보이는 어떤 일이나 결과를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임을 알아갑니다. 하느님께 의탁하여 묵묵히 살아간다면 그분께서 당신의 일을 하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이 선교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선교는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의지입니다. 저는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선물인 “신앙애”를 이곳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충분히 잘 살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느님께서 제 삶에서 보여 주신 것과 제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돌아보고 깨달아 그것을 다시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당장 변화가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기적은 아니지만, 하느님의 손길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변모시키는 힘이심을 믿고 저를 통해 하느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희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고 “불고 싶은 데로”(요한 3,8) 부는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대한 것을 넘어 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사도 1,8). ✠

필자가 활동하는 칠레 북쪽 지역이다. 산 아래 변화한 해안 도시와 달리 산 위는 가난한 이들이 사는 척박한 사막이다.

한국의 첫 레지오 단원 정기춘 수산나

인터뷰 · 정리 김소영

1953년 5월 31일, 한국교회의 첫 레지오 마리에 회합이 열렸다. 현 하롤드 대주교는 레지오를 도입하면서 전쟁의 상처로 신음하는 한국 교회와 사회를 위해 평신도들과 일하고 싶었다. 목포 산정동성당을 시작으로 골롬반 사제들은 본당에서 레지오를 결성하였고, 곧 전국으로 퍼져 나갔다. 그 시작을 연 “평화의 모후” 14명이 원요한 신부와 함께한 첫 주회는 빛바랜 사진에 남아 교회 역사의 한 장면이 되었다. ‘사진 속 주인공을 만날 수 있을까?’ 평소 품었던 작은 바람이 본회 한국 선교 90년인 올해 우연히 이루어졌다. 그중 한 분 어르신인 본당 신자라는 연락을 받고 찾아간 곳은 광주광역시 운암동. 레지오 1호 단원 정기춘 수산나 씨(94세)가 환한 얼굴로 우리를 반겨 주었다.

“우리 큰 며느리도 레지오 단장이고 작은 며느리(사진, 안진하 씨)도 레지오 했는데 직장 때문에 지금은 협조 단원 하면서 본당 레지오를 열심히 도와줍니다.”

“내가 이 사진을 처음 봤을 때 거기 아숨따도 있고 루시아도 있고 다 있는디 어째 내가 없어. 자세히 본게 곤술지아 씨가 앞으로 고개를 내밀 때 사진이 찍혀서 내 얼굴이 요래 가려져 부렸어요. 성모님 옆에 얼굴 반쪽 나온 이가 나여” (25쪽 왼쪽 사진).

뜻밖에도 정기춘 씨는 평양 근처 중화 출신이라고 했다. 1951년 12월, 돌도 안된 아들을 업고 아홉 식구가 피난 나왔다. 서울에 도착했다는 안도감도 잠시 돈을 뺏겨 빈털터리가 되었다. 다행히 목포행 배에 어렵사리 올랐는데, 바닷길에서라도 고단한 몸이 쉬면 좋으련만 이번엔 배에 물이 들어갔다. 아무리 퍼내도 안 돼 섬 오창도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쌀을 얻으려 해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 교회에서 떡을 주대요. 그날이 성탄절 밤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죠. 어떤 날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목포 유달산 아래 작은 집이 보금자리가 되었다. 가지고 온 옷을 팔아 밀친을 마련해 장사하며 살았다. 하루하루 바쁘게 사는 중에도 알 수 없는 갈망이 자랐는데, 그때는 희미했으나 돌아보니 하느님의 부르심이었다. “이웃집 할머니 댁에 서양 남자와 고깔 쓴 여자가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길래 한참을 봤어요. 나중에 할머니에게 물었더니 천주교 신부님(안 토마스 신부)과 당



1953년 5월 31일, 한국 최초의 레지오 주회합



지인 영세식에 참석했을 때. 맨 뒷줄 오른쪽이 정기춘 씨다. 가운데는 현 하롤드 대주교와 원요한 신부(목포 산정동성당)

가(원장) 수녀님이고, 천주교는 우리가 죽게 될 때 잘못을 용서받고 천국에 가도록 기도해 준다고, 중부성사했다고 하대요.” 그런 천주교가 너무 궁금했다. 구경 한번 가봐도 되는지 물었을 때 이웃 할머니는 화답했다. “그럼시다. 나와 같이 가봅시다.” 눈이 펄펄 오는 새벽, 처음 가본 성당에는 가시관 쓰신 예수님이 못 박힌 채 매달려 계신 큰 십자가가 있었다. 고개 들어 바라보는데, 까닭 모를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당장은 아니었지만, 얼마 후 그는 목포 산정동의 가족이 되었다. “본당의 손 파트리치오 신부님은 우리 가족을 축복하시면서 ‘복된 피난민’이라고 하셨어요.” 온 식구가 같이 안 토마스 신부에게 세례를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어느 날, 원요한 신부님이 본당에서 열심히 하는 젊은 사람들을 레지오로 초대하셨어요. 현 대주교님이 레지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요. 신부님이 하자고 하시니까 네! 했지요. 회합마다 골롬반 신부님들이 같이하셨고, 특히 원요한 신부님 훈화는 감동적이었어요. 우리는 더 힘을 내서 기도하고 전교했어요. 파견을 보내셨으니 전교가기는 했지만, 처음에는 어색하더만요. 집마다 찾아갔지요. 가난한 동네가 많았는데 거기부터 다녔어요. 그분들이 우리 말에 더 귀를 기울여 줬거든요. 눈에 모도 심어 주고 김도 매주고 여름에는 모시 적삼이 땀에 흠뻑 젖을 정도로 일해 주고 장사하는 데도 가서 거들고요. 갱생원에 가서 속옷 고무줄도 넣어주고 아이들 옷 바느질해서 입히고 물건도 고쳐주고... 아이고 참말로 레지오 단원들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전교를 많이 했어요.”

“레지오 안 하면 못 살겠습니다. 회원들하고 얼마나 재미있었는데! 내가 아니면 레지오가 안될 것 만치로 했어요.” 그런데 장사하느라, 또 오래 했으니 그만해도 된다는 마음이 자꾸 들어 갱신 선서를 하는 행사(아치에스)를 앞두고 그만하기로 결심을 굳힌 적도 있었다. “그날 꿈을 꿔는데, 성모님이 왜 선서 안 하려고 하느냐 물어보셨어요. 놀란 제가 성모님, 선서할게요 하면서 성모님 발을 붙들고 ‘나의 모후 나의 어머니여, 나는 오로지 당신의 것이요... (레지오 봉헌문)’ 하면서 영영 올랐어요. 성모님은 울지 마라 하셨어요. 제가 계속 우니까 우리 영감이 깨우더만요. 그리고 다음 날, 선서하러 갔지요.” 그렇게 레지오인으로 삶은 이어졌다. 정기춘 씨는 2003년에 50주년 맞은 한국 레지오 마리에로부터 상을 받았는데, 그후에도 15년을 더 했더니 나이 아흔이 다 되었다.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짧게 쉬고 다시 활동했지만, 그해 가을 수술 후에는 복귀하지 못했다. 지금은 기도로서 레지오를 동반하고 있다.

“손 파트리치오 신부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제가 정말 복된 피난민이 되어부렸어요. 주님께서 우리 가족 먹고살게 해주셨고, 지금은 잘 못 걷지만, 묵주기도할 수 있게 손을 움직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서 이렇게 골롬반에서 오시니 고맙습니다.”

선교 최일선에서 하느님 사명에 “참여”했던 정기춘 씨와 만남은 주님의 초대와 우리의 응답이 만나 하느님의 일이 이루어짐을 다시금 새기게 했다. 옛날로 떠난 여행에서 만난 주님은 그때도, 바로 지금도, 그리고 미래 선교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 ✠

문의

CMS 자동이체 신청, 내용 변경, 주소 변경, 우편물 수신을 원치 않는 분은 해당 지역 후원회로 연락해 주세요.

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련 협조 요청

그동안 자체 양식으로 발급한 영수증을 받으셨던 회원 중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분들은 미리 사무실에 요청하시면 등록해 드리겠습니다.
홈택스에 등록되면, 회원님께서 빠르고 편리하게 기부금 영수증을 출력하고, 파일로도 저장할 수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www.columban.or.kr) 후원회 게시판

•서울, 경기, 충청, 강원지역 서울 후원회 ☎ 02-929-2977 | 팩스: 02-929-1366
이메일: korseoulfund@columban.or.kr

•전라, 경상, 제주지역 광주 후원회 ☎ 062-371-5823 | 팩스: 062-371-5824
이메일: korkwangjufund@columban.or.kr

『골롬반선교』 잡지는 연 3회 발송(4, 9, 12월 예정)하며 이때 지로로 납부하시는 회원님께 지로용지를 동봉합니다. 용지가 더 필요하신 분은 지역 사무실로 요청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미사 봉헌

미사 봉헌을 원하시는 회원은 서울 후원회(02-929-2977)로 연락해 주세요.

후원회 월례미사

2023년 4월~8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장 소	문 의
서울(명동)	14일	5일	2일	7일	4일	명동 가톨릭회관	02-929-2977
서울(연남동)	28일	19일 야외미사	30일	28일	25일	돈암동 본부	032-529-9621
인천	11일	9일	13일	11일	-	부평2동 성당	032-529-9621
원주	12일	10일	14일	12일	-	원동성당 만남의 방	033-765-3350
안산	14일	12일	9일	14일	11일	원곡동 성당	031-491-2064
하안	28일	26일	23일	28일	25일	하안 성당	02-899-7328
목포	25일	23일	27일	25일	22일	대성동 성당	061-276-9218
순천	26일	24일	28일	26일	23일	저전동 성당	061-741-8285
전주	27일	25일	29일	27일	24일	덕진 성당	063-272-5302
광주	28일	26일	30일	28일	25일	광주 골롬반 선교회관	062-371-5823
부산	-	-	8일	-	-	용호동 성당	051-625-3382
제주	19일	17일	21일	19일	-	제주 골롬반 사제관	064-711-2471
	-	16일	-	18일	-	서귀 북자 성당	064-733-5523
	18일	-	20일	-	-	서귀포 성당	064-762-3444

- 서울: 성금요일 십자가의 길(4월 7일 낮 3시, 본부) / 야외미사: 5월 19일(금), 천진암 성지
- 원주, 인천, 제주: 8월에는 미사가 없습니다.
- 인천 대화동성당: 후원회 찬양미사(양창우 요셉 신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후원회원 가입신청서 및 CMS 출금이체 동의서



수납 기관명 : 재단법인 천주교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전화번호 : 02-929-2977

주소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93-14

성명

세례명

교구 :

(

본당)

주소

전화

휴대전화

E-Mail

@

기부금영수증(실기부자로만 발급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등록

☐ 우편 요청

☐ 영수증 거부

발급자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기록해주세요

(

-

)

선교 잡지 (3, 9, 12월 발송) 수신

☐ 원함

☐ 거절

전달 사항

월정액

원

회비납입방법

☐ CMS 자동이체(은행 방문 없이 자동이체 가능)

기타 납입

☐ 온라인 송금 ☐ 지로

※ CMS 자동이체 신청 (아래 모든 항목 기재 및 정보제공에 동의 필수)

출금 은행명

출금 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와의 관계

예금주 법정생년월일

(주민번호 앞6자리)

출금일

☐ 5

☐ 10

☐ 15

☐ 20

☐ 25

☐ 30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 수납,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및 이용 동의일부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 후 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자동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출금이체 신규등록 및 해지사실 통지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 통지 안내]

은행 등 금융회사 및 금융결제원은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의(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시지, 유선 등으로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및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 CMS 출금이체를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 :

(인 또는 서명)

후원 계좌

후원회원 여러분이 바로 선교의 뿌리입니다.

NH농협	179300-51-002198	우체국	014001-01-001544	KB국민	016737-04-001752
광주	200-107-332094	KEB하나	287-910011-22005	부산	070-01-022777-8
신한	140-007-742530	우리	1006-501-265347	IBK기업	012-056490-01-019
SC제일	225-20-397949	대구	004-10-004189	예금주:	천주교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지원사제 소식

지원사제 최동민 파스칼 신부(대전교구)가 12월 15일, 선교지 칠레로 떠났습니다. 앞서 2일 서울 본부에서 대전교구의 사제와 법동성당 교우들이 함께한 가운데 파견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2년을 기다려 출국하였는데, 기다린 만큼 더 행복하게 선교하기를 바라며 기도로서 동반해 주시길 청합니다. 또한, 대구대교구 구승모 바오로 신부가 지원사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여정을 출발한 구승모 신부가 파견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동민 파스칼 신부



구승모 바오로 신부

제28차 해외선교사교육

골롬반선교센터에서 1월 9일부터 시작한 <해외선교사교육>이 1월 28일 파견미사를 봉헌하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해외선교 예정인 총 9명(사제 5, 수도자 4)이 참여하였고, 이들은 올해 가나, 과테말라, 베트남, 호주 등 8개 나라로 파견됩니다. 선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충격을 최소화하고 실질적 준비를 돕는 본 교육은 전문가 강의와 모둠 활동, 선교 현장 방문, 선교사 만남 등으로 구성했고, 선교 영성, 이웃 종교 이해, 생태와 인권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골롬반평신도선교사 소식

아일랜드에서 난민사목을 했던 이경자 크리스티나 선교사가 한국에서 그 여정을 이어갑니다. 여러 민족, 다양한 종교를 가진 이주민과 난민을 위한 상담과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다른 종교인과 연대하고 협력하며 이 활동의 폭을 넓혀 간다고 합니다. 또한, 홍콩에서 리더십팀 임기를 마치고, 한국에서 안식년을 보낸 손선영 카타리나 선교사가 미얀마로 돌아갔습니다. 선교지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복음을 전하는 평신도선교사들을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왼쪽부터) 평신도선교사 이경자 크리스티나·손선영 카타리나

서울 본부 후원회 월레미사 3년 만에 재개

본부(서울 성북구 동소문동)에서 매달 드렸던 후원회 미사를 3년 만에 봉헌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명동 가톨릭회관으로 옮겨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 봉헌했는데, 올해부터 본부에서도 월레미사를 봉헌하게 되어 서울 지역은 두 곳에서 후원회 미사를 합니다. 오랜만에 드린 첫 미사는 오기백 다니엘 신부와 본국 휴가 중인 류선종 안드레아 신부(대만 선교)가 집전하였습니다. **매월 마지막 금요일 오후 2시, 서울 성북구 골롬반 본부**에서 봉헌하는 월레미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천노엘 신부, 그리스도교 일치 운동에 발달장애인과 참여

천노엘 신부(무지개공동회 대표)가 그리스도교 일치 주간인 1월 19일, 광주가톨릭청소년센터에서 엠마우스 공동체, 개신교회 등 그리스도를 믿는 100여 명과 함께한 <그리스도교 기도 모임>을 마련하였습니다. 특별히 환경 보호를 강조하면서 복음 봉독과 강론, 발달장애인들의 외침과 기도, 평화의 인사로 채워졌으며 종교, 장애, 비장애라는 경계를 넘어 세상과 교회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진 제공: 엠마우스복지관

참석자들이 손을 잡고 주님의 기도를 합송하는 모습이다.

한국지부 영문 뉴스레터 발행, 한국지부 SNS 안내

2월 1일, 영문 뉴스레터(2023년 겨울호)를 발행하였습니다. 오기백 다니엘 신부가 새롭게 뉴스레터를 맡게 되었고, 안재선 제이슨 신부가 디자인하였습니다. 한국지부의 활동을 해외에 알리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채로운 내용이 담겨 있는 영문 뉴스레터는 디지털 파일로 연 3회 발행하며, 홈페이지(www.columban.or.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오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 유튜브 [성골롬반외방선교회](#)
- ▶ 페이스북 한국지부 www.facebook.com/columbankorea
평신도선교사 www.facebook.com/LMcoordinator
- ▶ 인스타그램 한국지부 www.instagram.com/columban_korea
평신도선교사 www.instagram.com/clmkorea
성소국 www.instagram.com/korvocation



본회 부총장 브라이언 베일 신부 공식 방한

2월 21일, 한국지부를 공식 방문한 본회 부총장 브라이언 베일 신부(Brian Vale, 사진 앞줄 오른쪽)가 광주대교구와 제주교구를 방문해 옥현진 시몬 대주교와 제주교구 문창우 비오 주교(사진)와 환담하고,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골롬반 선교사들을 만났습니다. 또한, 서울 본부 후원회 월례미사에서 강론하며 “세계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과 함께하는 골롬반회 선교 활동을 지지하고 동반해 주신 후원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지부에서 열린 국제 리더십 회의

성골롬반외방선교회는 3월 19일~31일, 한국지부에서 국제 리더십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총장 팀 몰로이 신부를 비롯해 중앙 참사단, 각국 골롬반회 지부장과 선교사 대표, 직원 등이 참석해, 내년 세계 총회를 준비하며 골롬반회의 선교 현안과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 서울대교구 구요비 옴 주교가 본 회의의 개막미사를 주례하였다.



영원한 안식을



마리아 부니이비 선교사
Maria Vuniivi

피지공화국 바 출생이며, 피지인으로 서 처음 한국에 파견되었던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前 평신도선교사,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대교구 삼양동선교분당 등지에서 활동. 2023년 3월 11일 피지에서 선종



진 토마스 신부
Tommy Murphy

아일랜드 메요 출생. 1974년 사제수품 후 한국 도착. 광주대교구 흑산도·강진, 부산교구 연산동에서 본당사목. 대만과 아일랜드에서 활동. 2006년 본회 총장 역임. 중국과 홍콩에서 활동. 2023년 1월 6일 홍콩에서 선종. 아일랜드 달간파크 안장



진 아오스딩 신부
Austin McGuinness

아일랜드 미스 출생. 1965년 사제수품 후 한국 도착. 광주대교구 함평·목포 북교동·광주 방림동, 부산교구 사상, 인천교구 고잔에서 본당사목. 아일랜드에서 활동. 2022년 12월 29일 선종. 아일랜드 달간파크 안장



천 요한 신부
John Smyth

아일랜드 메요 출생. 1962년 사제수품. 1963년 한국 도착. 춘천교구 묵호·임당동·죽림동·진부·양덕원, 원주교구 평창, 서울대교구 상봉동·목동(설립)·목3동·도봉동에서 본당사목. 미국에서 한인교포사목. 2022년 12월 10일 선종. 고향 “성 베드로 성 바오로 성당” 경내 안장



브렌단 호반 신부
Brendan Hoban

아일랜드 메요 출생. 1971년 사제수품 후 한국 도착. 원주교구 영월·문막·원주교구청, 서울대교구 장위동·상봉동·사당동, 인천교구 부천 삼정동, 부산교구 만덕동(설립)에서 본당사목. 광주대교구 노동사목 “노동자 성요셉 집”, 단종독사목. 2023년 2월 24일 선종. 아일랜드 달간파크 안장



주 예레미야 신부
Jeremiah Cotter

아일랜드 코크 출생. 1954년 사제수품. 1955년 한국 도착. 광주대교구 나주·광주 북동·함평·진도, 인천교구 소사, 의정부교구 구리에서 본당사목. 서울대교구 영성생활상담소 창립(소장)과 신학생 영성 지도. 은퇴 후 제주에서 활동. 고국 휴가 중 2022년 12월 30일 선종. 아일랜드 달간파크 안장



미얀마 미치나교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제훈 아오스딩 신부가 신자 가정을 방문해 집 축성 예식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이제훈

사제 성소 모임

때 매월 첫째 일요일 9:30~14:00

곳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한국지부
(서울 동소문동)

문의 구화 루까노 신부
010-8686-1918
korvocation@columban.or.kr

골롬반평신도선교사 관심자 모임

때 매월 둘째 일요일 14:00~17:00

곳 골롬반평신도선교사 센터
(서울 동선동)

문의 노혜인 안나 선교사
010-3817-0567
clmkorea@gmail.com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성소 모임

때 매월 셋째 일요일 14:00~17:00

곳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서울 돈암동 수녀원

문의 이애리사 엘리사 수녀
010-5033-9302
columbankor@hanmail.net

지원사제 문의 남승원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010-9937-0901 korassocodi@columban.or.kr



성골롬반외방선교회
Missionary Society of Saint Columban

02830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93-14 | 전화 02-926-1217 | 팩스 02-926-0551
www.columban.or.kr